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9월 3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강북구의회, 217회 정례회 18일간 일정 돌입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등 심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 당부”



▲ 이백균 강북구의회 의장이 강북구의회 21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3일 제217회 강북구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이 빼곡하게 있다”라며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미래지향적인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청 집행부에게는 지적사항들에 대해 긍정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 후 “추경예산안은 결산 후 잉여금으로 추가된 복지비와 인건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날 ▲회의록 서명위원의 건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북구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회의록 서명은 최재성·서승목 구의원이 하기로 결정 됐고, 예결위원은 김영준·조윤섭·최치효·김미임·김명희 구의원들로 구성 됐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번 추경예산 예결위원장에는 조윤섭, 부위원장에는 김명희 의원이 선임됐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국·시비보

조사업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정산분, 자치구 기타재원 수입 등이 재원이며, 일반·특별회계를 모두 합해 226억3천만원이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억8천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33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사업비 편성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8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치우개선 지원에 4억9천만원 등으로 113억 78천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31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조소득 주립 자립기반 지원비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됐다.

구본승·최치효·허광행 의원은 공동으로 “동북선경전철의 미아사거리역과 북서울꿈의 숲 위치가 유독 강북구 주민들에게만 접근성이 제약된 실정이다”라며 “강북구 이용주민의 도보 접근 이용의 편리를 위해 미아사거리와 북서울꿈의 숲동문삼거리역의 위치변경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를 실시해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용균 구의원이 ‘강북구 주요 인사채용 관련(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비서실장)’에 대해, 유인애 강북구의회 부의장이 ‘불평등 한 강북구 내 정당 간 당정협의’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강북구의회 21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 발언과 촉구 건의에 대해서는 본지 896호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